간화선 세계화 기지, 가야산 우뚝 서다

해인사, 23일 선림원 개관
2017년 착공 이후 2년만에
200명 수용해 禪수행 가능
다도, 사찰음식 등도 체험


해인사에 신축된 선문화체험관 전경. 선림원과 휴휴정사 등 5개 동으로 이뤄졌다. 이곳에서는 선과 다도, 사찰음식 등 불교 수행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다.

해인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한국불교 전통 수행법인 간화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전진기지가 가야산 해인사에 우뚝 섰다.

조계종 제12교구 해인총림 해인사(주지 향적)는 5월 23일 가야산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선림원 개관식을 봉행했다.

가야산 해인사 선문화체험관 '선림원'은 지난 2015년 10월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이 체험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됐다. 해인사 화장원(華藏院) 터에서 2017년 6월 착공식을 개최했으며, 18개월 간의 불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총 5개 동으로 이뤄진 체험관은 해인사 국제선센터 선림원으로 운영되며, 연간 100만명이 넘는 내방객들의 참선 수행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활용된다. 가장 중심에 있는 선림원은 건면적 285.12㎡으로 2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정면 7칸, 측면 5칸, 팔작지붕의 전통 한옥 건물로 가야산 정상과 소나무숲을 배경으로 선방으로서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휴휴정사는 1, 2층으로 나눠 운영된다. 1층은 세미나장이자 다도, 사찰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2층은 템플스테이 숙박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면 13칸, 측면 4칸으로 구성된 무아정사는 객실 및 휴식공간으로 구성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경쟁 속에서 남과 비교된 내가 아니라 그것에서 벗어난 나의 본래 모습, 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참다운 안심법이고 이를 찾아 전문적인 명상처를 찾아 가는 것이 복잡다단한 이 시대를 극복하려는 새로운 흐름"이라며 "이곳 가야산 맑은 숲 속에 와서 쉬고, 선을 체험해 안정을 되찾고 힐링이 되어 세상에 나가면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림원이 제대로 된 안심처가 될 수 있도록 선림원장 소임을 맡은 진각 스님과 총림 대중들은 달마, 혜가 스님 같은 조어사 역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주지 향적 스님은 인사말에서 "선림원을 신축한 것은 서양인들이 한국 선불교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해인사를 찾아와도 그들을 위한 선원이 없어 아쉬움 갖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발원하게 됐다"며 "앞으로 해인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교 초월해 마음의 평화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새로 건립된 선림원이 한국불교의 수행문화를 이끌어주길 기대했다. 원행 스님은 "해인사가 치열한 정진력과 수행으로 쌓아올린 빛나는 전통을 바탕으로 선문화체험관을 개관하게 됐다"면서 "선대 자랑스러운 역사처럼 우리들의 정진 역시 평화세상을 만들고 백만원력을 결집해 미래불교 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보종찰 수행도량의 품격을 더하고 세계인들이 함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명소로 잘 활용되길 기원한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수행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개관식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원택 스님, 문준희 합천군수, 하창환 前 합천군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부 · 건강 챙김 함께" 걷기명상대회 열린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6월 1일 여의도공원 일대서



2018년 5000여 시민과 불자들이 한강에서 진행한 걷기명상 대회가 소외계층을 위한 새로운 걷기명상대회로 거듭난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이사장 혜거)는 6월 1일 오전 10시 한강 여의도공원 물빛무대 일대에서 걷기명상대회 '명상, 한강을 걷다'를 개최한다.

2회를 맞는 이번 걷기명상 대회는 한강변을 따라 약 3.7km를 걷는 대회다. 워커온 앱을 통해 걸음마다 소외계층을 위한 1원 적립 기부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지도자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 저명인사들의 소장품을 판매, 수익금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행사도 열린다.

모연된 기금은 서울시 거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산모 영양제 지원과 사회복지원각 노인무료급식소 후원에 사용된다.

이번 걷기명상대회는 지난해와 달리 중간에 한강을 바라보며 명상을 하는 시간도 제공된다. 걷기에 치중하지 않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직위원장 선업 스님은 "걷기명상은 걷는 발동작과 느낌을 알아차림으로써 깨어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명상법"이라며 "정적인 좌선보다 호흡을 관찰하기 쉬워 초심자들에게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명상지도자협회 등록 단체의 다양한 명상체험 부스도 운영돼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명상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명상지도자협회 이사장 혜거 스님은 "명상 전문가들이 직접 시민들을 안내하고 지도하여 단순한 걷기 운동에서 더 나아가 명상을 융합한 시민 마음 치유 프로그램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무산 스님 그 아픈 마음 언제 거두시겠어요"

신흥사서 5월 16일 오현 스님 입적 1주기 추모 다례재

추모 세미나, 책 출간 등
다양한 추모 행사 잇달아
공적비와 기념관 건립 등
추모 선양사업 펼칠 예정


강원도 속초 설악산 신흥사는 5월 16일 설법전서 신흥사 조실을 지낸 설악 무산 대종사 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다례재에서 평생 도반 정휴 스님이 행장을 소개하고 있다.

"무산 스님 어딜 가셨어요. 잠시 돌아 앉아 하고픈 일 있어 적정 삼매에 드셨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셔서 그곳 중생들 마정수기 하셨습니까. 도솔천 내원궁에서 목청껏 무생곡을 불렀습니까. …(중략) 속히 대적 삼매에서 깨어나소서. 영남루에 봄바람 일어 천하가 태평합니다"(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추도사 中에서)

강원도 속초 설악산 신흥사는 5월 16일 설법전서 신흥사 조실을 지낸 설악 무산 대종사 1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무산 스님과 평생 도반이던 금강산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을 비롯해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불교TV 회장),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 스님, 서의현 前 조계종 총무원장,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직지사 前 주지 법등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등 종단 원로 및 중진 스님들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선 前 강원도지사, 김진태 前 검찰총장 등 정관계 인사 및 이근배 오세영 신달자 홍성란 시인 등 평소 무산 스님과 친분 깊던 문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용대리 마을 주민과 신흥사 신도 등 평소 무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기리는 500여 사부대중이 다례재에 참석해 추모했다.

이날 다례재는 화암사 회주 정휴 스님의 무산 대종사 행장 소개와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의 추도사 순으로 시작됐다. 성우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여기 모인 인연 있는 대중들은 모두들 마음 한자락 잃어버린 듯 합니다. 무산 스님 그 아픈 마음 언제 거두어 주시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쌓인 마음을 다음 생에 만나서 회향 하셔야지요"라고 추모했다.

이어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도 진제 조계종 종정 스님의 법어 대독을 통해 "소식이 다할 때 기쁨이 다함이거늘, 마땅히 사람들이 어떻게 탁한 가운데 맑음을 가릴꼬. 구름이 없으니 산마루가 드러나고, 오직 밝은 달은 물결 위에 있음이로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문도대표 인사말을 통해 "조실 스님께서는 설악산문의 큰 어른으로서, 또 종단 원로로서 평생을 사사봉공의 승가정신으로 살아오신 분"이라며 "조계선풍 시원도량 설악산문을 재건하고 다시 크게 선풍을 일으킨 법력은 오래도록 후학과 사부대중의 마음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송 스님은 "문도들과 신흥사는 앞으로도 조실 스님이 생전에 보여주신 운수가풍과 사해중생에 대한 자비호념의 가르침을 이어가며 산문의 번영과 영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지막 무애도인'으로 회자된 前 신흥사 조실 무산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설악산 일대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다.

이외에도 추모행사가 후에는 문도회가 중심이 돼 공적비와 기념관 건립 등의 무산 스님 선양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속초 신흥사=김주일 기자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 '보물' 승격

문화재청 지정 공고… "18세기 대표 다포식 건물"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인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이 보물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0호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24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례 천은사 극락보전은 천은사의 주불전으로 1774년(영조 50년)에 혜암선사(惠庵禪師)가 중창하면서 세워졌다. 중생들의 왕생극락을 인도하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하여 정면 3칸, 옆면 3칸 규모의 다포계 팔작지붕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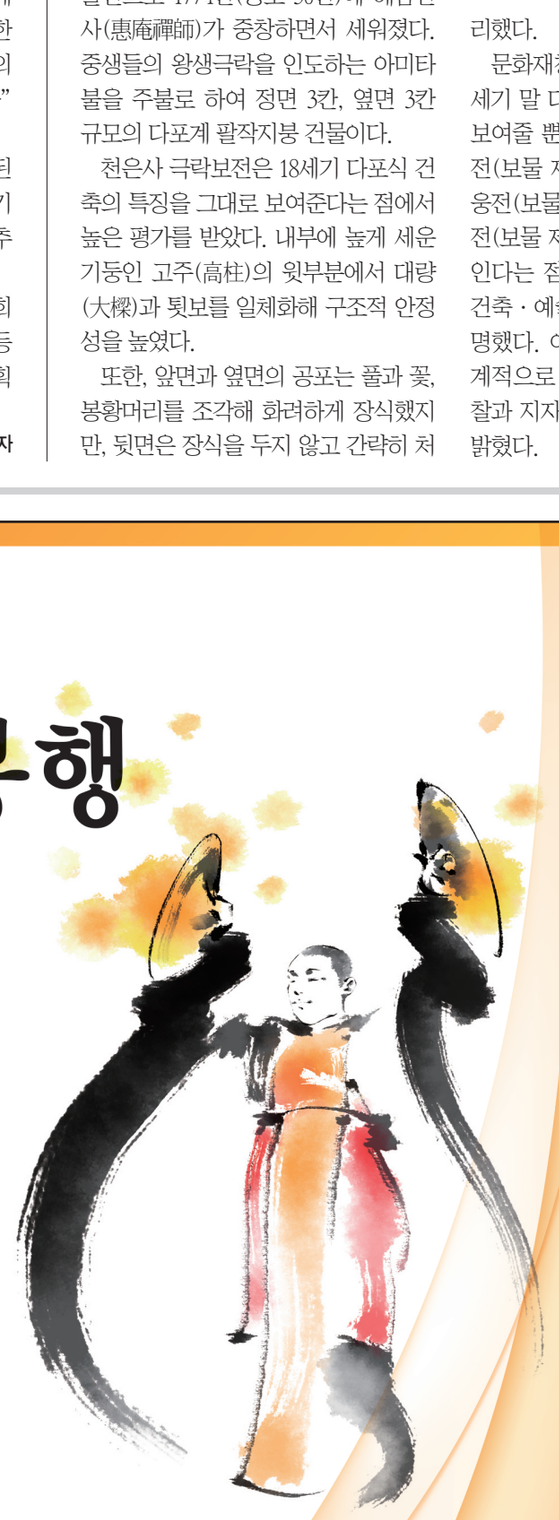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 다포식 건축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내부에 높게 세운 기둥인 고주(高柱)의 윗부분에서 대량(大樑)과 툇보를 일체화해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앞면과 옆면의 공포는 풀과 꽃, 봉황머리를 조각해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뒷면은 장식을 두지 않고 간략히 처리했다.

문화재청은 "천은사 극락보전은 18세기 말 다포식 불전의 여러 특성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남 미황사 대웅전(보물 제947호)이나 영광 불갑사 대웅전(보물 제830호), 나주 불회사 대웅전(보물 제1310호)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물로 지정될 역사 · 건축 ·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은사 극락보전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사찰과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충효 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



▮입재 2019년 6월 12일(음력 5월 10일) ▮회향 2019년 6월 16일(음력 5월 14일)

귀의삼보 하옵고, 기해년을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피 원력이 불자님 가정에 두루 충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찍이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는 미래세상에 지구촌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체 고통을 해탈하고 무진 복락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소백산 구봉팔문 아래임을 증명하여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천태종을 중창하셨습니다. 본 대한불교천태종 송덕사에서는 서양사람들의 발걸음이 구인사에 끝없이 이어지길 염원하신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뜻을 받들어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 중 미합중국 장병 전사자들을 위하여 33인등을 한등씩 달아 그 자손까지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미합중국 장병 전사자들을 위한 33인등 한등 달기에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희동참바랍니다.

● 관음경(관세음보살보문품) 독송대회 : 6월 13일 ~ 14일 (참가신청 : 6월 7일까지 / 장소 : 송덕사 법당)
●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천도법회 및 위령천도재 : 6월 15일

● 장소 :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덕사
● 계좌 : 기업은행 031-666-3180(송덕사)
● 문의 : 031)666-3180
● 동참비 : 미군 전사자(35,686 영가) 33인등 1등 봉헌금 1만원
생전예수재 5만원
영산재 신도님 선대조상 10영가 이상 100만원

33인 등이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증명하신 등으로, 33인이 모여서 하나의 원력을 만들어 부처님께 기원드리면, 속득 소원성취가 된다는 등입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 덕 사